

# ‘전설의 보컬’ 정동하·알리, 빛고를 라이브 무대 빅매치

‘SONG: THE BATTLE OF LEGENDS’...22일 광주예당 대극장

## ‘불후의 명곡’ 남녀 최다 우승...그 감동을 다시 한번 폭발적 에너지 강렬한 무대...설렘 가득 듀엣 공연도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정동하와 알리가 한 무대에서 맞붙는다. ‘불후의 명곡’에서 남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운 두 사람이 광주에서 뜨거워 라이브 무대를 펼친다.

정동하와 알리는 오는 22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정동하 × 알리 SONG: THE BATTLE OF LEGENDS’ 광주 공연을 연다.

두 사람은 KBS 음악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통해 강렬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알리는 여자 가수 최다 우승, 정동하는 남자 가수 최다 우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콘서트 역시 그 서사를 전면으로 내세운 무대다.

정동하는 이번 공연에 대해 “오랜만에 콘서트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 봄과 함께 설레는 마음”이라며 “관객들이 어떤 곡을 들어야 만족할지 고민했고, 좋아하는 동료이지만 알리 씨와 대결 구도에서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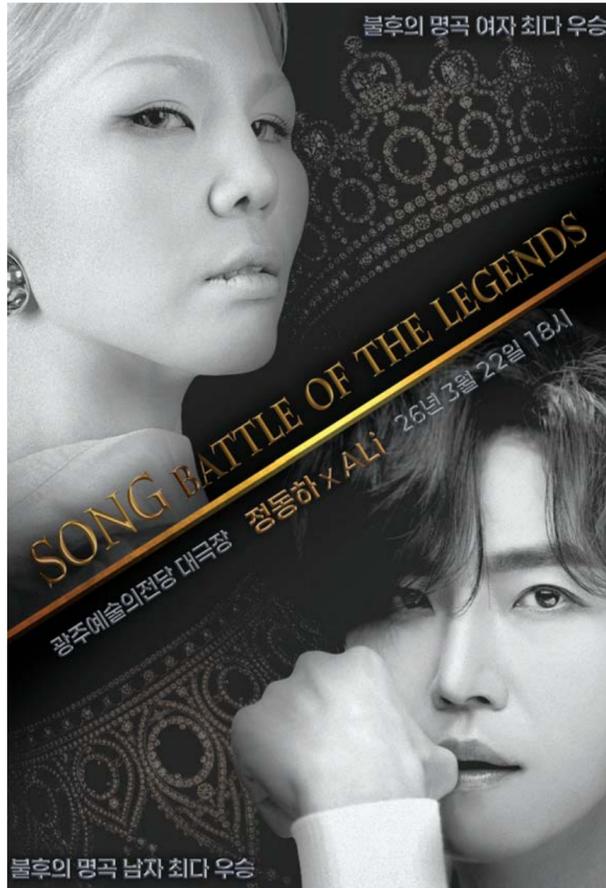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후의 명곡’ 경험이 이번 무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프로그램에서는 계획대로 무대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상대 무대의 에너지에 눌리지 않기 위해 나도 모르게 더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며 “이번 공연에서도 그 시너지가 작용할 것 같고, 당시 강하게 각인됐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와의 인연도 언급했다. 서울 출생이지만 과거 광주 동산동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는 그는 “전국투어의 첫 시작을 광주에서 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콘서트의 시작인 만큼 모든 걸 쏟아내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서트 역시 관객의 기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동하는 “관객들이 저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무엇인지, 알리 씨와 어떤 듀엣 무대를 보고 싶어할지에 가장 신경을 썼다”며 “연출적인 한계로 보여주



지 못했던 ‘불후의 명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리메이크 신곡 ‘그 집 앞’도 이번 세트리스트에 포함된다. 그는 “기타 연주와 함께 ‘그 집 앞’ 무대를 준비했다”며 “다 함께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리 역시 듀엣 콘서트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그는 “재작년 전국투어를 돌며 많은 응원과 기대를 받았다”며 “두 번째 듀엣 콘서트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객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고, 나 역시 컨디션을 단단히 하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불후의 명곡’과 관련해서는 포스터에 등장한 왕관 이미지를 언급했다.

알리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건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였다는 의미이고, 우승은 무대를 함께 만든 스태프들을 위한 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골목길’ 등의 무대를 재연하거나 새롭게 연출해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에 대해서는 “예술의 도시 광주 시민의 구미에 맞는 공연으로 기억되

길 바란다”며 “티켓 값이 아깝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은 가수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광주에서 진행한 20주년 단독 콘서트를 떠올리며 “보내준 사랑이 자존감을 높였고 회복탄력성을 키워줬다”고도 전했다.

신곡과 관련해서는 대표곡 ‘365일’, ‘서약’을 비롯해 모던록, 팝, 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예고했다. “저는 흥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며 댄스곡 무대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예전 공연보다 듀엣곡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신곡 ‘진달래꽃 피었습니다’도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

알리는 “김소월 시인이 떠오르는 제목인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며 “누군가가 그리울 때, 애절한 마음을 노래로 위로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가수의 소속사인 뮤직원컴퍼니 측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불후의 명곡’에서 증명된 무대 내공이 한자리에 펼쳐질 것”이라며 “남녀 최다 우승 보컬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 티켓 R석 13만2천원, S석 11만 원. 문의(주티나엔터테인먼트) 010-2726-6659. /최명진 기자

## 감성 보컬 정효빈, ‘영 스테이지’ 첫 무대 장식

광주예술의전당 새 기획공연 브랜드 첫 주자...20일 광주예당 소극장

감성 보컬 정효빈(사진)이 광주예술의전당 새 기획공연 브랜드 ‘영 스테이지’(Young Stage)의 첫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약 100분간 인터미션 없이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정효빈의 맑고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전당은 기존 기획공연 ‘포커스’를 올해부터 ‘영 스테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은 공연 브랜드로 재정비했다. ‘영 스테이지’는 동시대 감성을 이끄는 아티스트를 조명하며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소개하는 시리즈다.

그 첫 주자로 나서는 정효빈은 2019년 디지털 싱글 ‘처음이라서’로 데뷔해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TOP100에



진입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달라진 니 마음’, ‘혼자가 아닌 나’ 등을 발표하며 음악적 영역을 넓혀왔다. 맑고 따뜻한 음색과 안정적인 고음, 섬세한 감정선이 어우러진 그의 노래는 꾸준한 공감을 얻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OST 참여를 통해 활동 폭을 넓혔고, 단독 콘서트와 팬미팅을 이어가며 공연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도 다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를 시작으로 ‘몇 번의 이별’, ‘처음이라서’, ‘혼자가 아닌 나’ 등 대표곡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민다. 기타 전찬기, 드럼 신동필, 베이스 최명호, 건반 최강수가 함께해 완성도 높은 라이브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 3만 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공식 누리집과 예스24(1544-6399)를 통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 ‘40년 전통’ 빛고를 대표 연극가린다

오는 10-13일 제40회 광주연극제

광주 공연예술의 지력을 확인하는 제40회 광주연극제가 막을 올린다. 40년 전통을 이어온 무대에서 올해 광주를 대표해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작품이 가려진다.

제40회 광주연극제는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광주연극협회) 주최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1983년 시작된 광주연극제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광주 대표 극단과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지역 예선 대회다. 지역 프로 극단들이 참여해 작품성과 창작 역량을 겨루는 자리로, 해마다 광주 연극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무대로 자리해 왔다.

올해 경연에는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백조의 노래’, 극단 가지늬의 ‘성(性)스러운 수다’, 극단 시민의 ‘산불’, 극단 터의 ‘스무살의 비망록’ 등 4개 작품이 오른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7시 빛고를시민문화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경연은 빛고를시민문화관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해 광주연극제 대상팀 극단 진달래피네 ‘흑색소음’

서 이어지며, 폐막식과 시상식은 14일 오후 4시 미로극장 1관에서 열린다.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사전 예매를 받고 있으며, 네이버폼과 플레이티켓, 티켓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이청  
상품등록: 제40-1007119호

#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보람약품(주) 062)528-6664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